

지식기반경제와 경영학교육

허철부*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대비한 한국 경영학교육의 자리 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가오는 새천년은 지식기반경제, 지식경영과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있으며 그 관건은 지난 세기의 경제활동의 주역이 "육체노동자"였는데 반하여 "지식노동자"를 중심 축으로 할 것이 예상된다. 우수한 지식노동자의 배출이 우수한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능력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도 쉽게 유추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일본경제의 불황과 1997년이래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을 많은 연구자들은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준비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 1991년 3월 이후 미국경제의 놀랄만한 경제적 성과를 동일한 이유로 설명하고있다. 미국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ITC)은 전통적 공업국인 일본(80년대 대중화 디지털 통신망 캡틴)이나 불란서(70년대에 대중화된 디지털 통신망 미니텔)뿐만 아니라 중공업국인 한국도 상당히 갖추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경제가 미국의 지식경영 시스템을 흡수하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학제적 방법은 사회학, 심리학, 언어학, 교육학 및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은 2중 고리 학습법, 지식노동자 지원시스템을 포함하는 지식경영학, 전문 학술논문집과 학술회의의 복합적 활용방안을 포함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기반 시스템의 최근 발전추세와 역사, 그리고 한미간의 적용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제안에는 한국 정부와 기업과 학계의 의사소통상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영어사용 등을 제시하고있다.

1.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대비한 한국 경영학 교육의 자리 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새 천년의 경제적 현실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1세기에 대한 상당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연구성과는 지식기반경제, 지식경영과 지식산업을 집중이 되어왔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경제의 불황과 1997년이래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을 많은 연구자들은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준비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른 연구자들은 OECD 국가들의 현재의 높은 실업률과는 반대로 1991년 3월 이후 미국경제의 놀랄만한 경제적 성과를 똑같은 이유로 설명하고있다. 일본을 선두로 한 아태신흥공업국의 싼임금과 중고기술의 빠른 습득에 의한 경쟁력 하에 대규모급 실업을 오래 겪었던 구미 공업국중 유독 미국만이 91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과 높

* 명지대학교 교수

은 실업율의 해소는 ITC를 기업경영에 혁신적으로 원용한 지식경영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경제 신문인 매일경제는 1997년이래 한국 경제적 처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식 경영이라 선포하고있다. 한국의 외환을 유동성의 위기이며 외환관리의 문제, 대기업의 자본구조의 악화와 무리한 확장이라고 전통경제학과 전통경영학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자본 부족국이었던 한국기업이 60년대의 자기자본율 0%에서 90년대 말기에는 20%로 자기자본율을 높였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익율의 악화로써 높은 타인자본율의 servicing을 하고도 이익을 내던 한국기업이 한국기업이 90년대에 들어서 매출액영업이익율을 (+)1-2%로 분식하였지만 사실상 (-)1-2%였던것이 부채구조의 악화와 외환의 누적과 단기고리채의 급증등 부채구조의 악화에 이르는 근본원인으로 볼 수 있다. 동기간 일본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이 평균 1-2%인데 반하여 많은 미국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이 10%이상 이었다. 1995년 세계최대이며 세계 최고의 굴뚝산업의 상징인 썸 웰치의 GE는 매출액영업이익율을 10%에서 1996년에 20%로 올리는데 e-commerce로 성공하고있다. (Laudon, 1998) 오늘날 각종 신경영기법으로 거론되고있는 구조조정과 아웃 소싱등의 기법이 70년대 GE의 썸 웰치의 머리에서 나오고 신속히 많은 미국기업에 “학습”되었다. 우리기업은 30년 후인 오늘날 일본을 뒤따라 썸 웰치를 “학습”하고있다. 이 차이를 지식경영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지식경영 그리고 지식기반경제는 전통적 생산요소인 자본, 노동 그리고 토지에서는 부가가치의 창출이 근소하고 새로운 생산요소인 지식에서 가치의 창출이 극대화되며 이 새로운 생산요소는 전통적 생산요소와 판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버클리 의 경제학자이자 경영학 교수인 바리안 (Hal R. Varian, 1998)은 미국경제의 주도적 추진력이 ICE, 즉 정보(information),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오락(entertain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지식기반경제라는 단어대신 정보경제란 용어를 선호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경제’란 용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지식기반경제, 지식경제 및 지식경영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드러커와 매치랩(Fritz Matchlap)을 포함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은 20세기 초반 이후 미국에서 지식노동자의 꾸준한 증가가 있음을 고찰하였다(Cortada, 1998).

산업경제하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들은 정보경제학자들에 의해 지식노동자, 정보 노동자, 데이터 노동자로 재분류되고 있다(Laudon, ibid). 여기서 쓰일때 그 “지식”이라는 용어는 자료, 정보, 일반적 기술, 창의력, 정보와 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최우량 경영관행, 핵심역량 등이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때 쓰이는 ‘지식’(knowledge)의 총체를 동태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세계 경제하에서 지식은 자본, 노동, 원재료 및 토지와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와는 달리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영학, 경제학, 그리고 다른 사회과학의 하위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를 이루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에 의하면, 자연과학의 역사에서 기존의 핵심과학이 지속적으로 변칙을 경험하게 될 때, 난세 또는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낮은 패러다임의 상태가 발생된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어 진시황

의 천하통일과 같은 패러다임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에서 인간의 경제적 행위의 변화는 후기산업사회의 주창자들에 의해 제시된 것처럼 다른 사회과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를 대표되는데, 사회학자 벨, 토플러, 크로지어, 마즈다, 김경동, 정치학자로서 브레진스키, 칸, 커뮤니케이션 학자 맥루한, 경제학자 매치랩, 김세원, 드럭커, 노나가 이외에도 많다. 이러한 학자들은 미래학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들 다양한 학문분야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다. 이렇게 지식기반경제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지식기반경제학, 정보사회학과 지식경영학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새로운 기술의 파급효과

드럭커는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에는 조직구조의 본질적인 변화가 뒤따른다고 주장하고있다. 권력은 조직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지식과 능력에서 파생하고 또 조직의 편성은 지식과 정보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분권화가 될 것이고 전문가 집단은 전자적으로 대면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할 것이다. 일단 조직인은 업무를 완수하고 나면, 각자가 다른 태스크 포스로 이동하는 잠정적 소속관계를 가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휴대용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휴대용 사무실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단순사무직은 점차 감소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더 이상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가상조직으로써 운영된다. 지식과 정보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받고 어느 때든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1998년 현재 4백만의 가상노동자들로 추산되는 노동력이 세계의 각처에서 미국의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eefs, et al, 1998).

따라서 조직의 형태는 민츠버그(Mintzberg)가 주장하였듯이 임시변통체제 (Adhocracy)의 구조가 될 것이다. 드럭커(1988)에 의하면 "20년 내에 전형적인 거대 기업 관리직의 규모가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전형적 기업의 관리자의 1/3이상은 지식기반에 근거하며, 동료, 소비자, 그리고 상관들로부터 조직화된 환류를 통해 그들 자신의 성과가 통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을 정보기반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다." 현재 많은 한국기업의 계층의 수가 전통적인 14 개에서 6내지 8개로 바뀌고 있으며 많은 미국기업에서 계층의 수가 2-4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적 경제이론이 도전을 받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난 250년 동안의 산업경제시대에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경제학 이론들이 현재 미국의 지식경제시대를 설명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점차 정보와 지식집약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집약적 상품과 서비스는 치열한 경쟁 하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겪고있다. 지식경제시대에서 그들은 토

지,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들 그리고 심지어 재정정책마저도 산업경제시대에서처럼 잘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아담 스미스가 자유시장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 완전경쟁의 개념이나, 마르크스의 노동자의 독재 뿐 아니라, 슈페터의 혁명적 파괴의 폭풍의 개념들이 전통적 산업시장에서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다. (Neef, 1998).

전통적 경제이론에 근거한 시장실패는 필립스 곡선과 마살의 수확체감의 법칙에 집중된다.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고용의 증대는 높은 임금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하강에 이른다. 그러나 최초의 지식기반경제인 미국 경제는 1991년 3월이래 중단되지 않는 경제적 호황을 누려왔다. 지난 9월 실업률은 3.9%이고 임금 상승률은 0.2%이었다.

마살의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생산요소의 지속적 투입은 일정수준까지는 생산성의 증대에 이르나 어느 시점을 지나면 오히려 생산성이 감소하여 시장에서 누리던 상품이나 가격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우위는 시장의 균형 점에서 한계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다. 스탠포드의 경제학자 아더(1996)는 마살의 이론이 "주로 굴뚝산업과 대량생산체제에는 거의 타당하나 현재와 미래의 정보와 지식의 경제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과 내일의 경제에 타당한 이론은 학습효과에 의한 수확체증의 이론이다"라고 주장한다. MIT의 경제학자 써로우(1999) 교수는 투자, 고용, 소득, 지출과 같은 경제적 요소들과 주가는 영구작동경제를 (Perpetual Motion Economy)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연방지준위의 경제학자 로렌스 마이어(1999)는 과거에는 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의 가격증가가 5.5%도 안되었으나, 오늘날에는 3%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어떤 학자는 낮은 임금의 인상수준은 스톡옵션의 새로운 보상체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미국 경제의 버블효과로 지적하기도 한다. FRB 부의장 리브린(1999)은 낮은 임금의 원인을 구조조정, 경영혁신, 그리고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가져온 ICT로 돌렸다. 그리고 MIT의 크루그만(1999)은 현재 미국의 장기적 경제적 번영은 국제 상품 가격의 갑작스런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실업률이 약간만 하락했다면,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서 이자율의 조정과 달러의 평가절하를 보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제학자들도 미국경제가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기반의 사회로의 빠른 변화하는 현상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일부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지식노동자의 빠른 증가에 주목을 하고 있다.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의 변화과정에서 실업률의 증가뿐 아니라 노동자체와 경제구조의 변화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조직 과학자들과 경영정보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관료적 조직의 변화를 통한 지식기반경제의 생산성 향상, 팀 관리, 경영의사결정의 재구성 그리고 조직의 변화와 혁신의 많은 대체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Bulgelman et al, 1996).

3. 정보통신기술(ICT)이 사회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

미시경제의 생산함수의 이론에 따르면 생산량은 무차별곡선 상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자본이나 노동중 한 요소만 투입하여 타요소 투입량의 감소를 기할 수 있는데 그 구성비의 결정은 상대적 노동원가에 의한다. 기업은 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산출물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세계화의 진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세계적으로 재배치하고 기업의 가상적 통합 즉 네트워크와 전통적 조직의 규모를 급속히 감량화하여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

미시경제학의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정보통신기술로 노동력의 점진적 대체가 가능하다. 그 결과 생산함수곡선은 하향화하며 생산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량 모두를 감소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시장에서의 거래원가보다 내부거래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을 때 생존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기업은 자체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모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규모의 증가 없이도 내부거래원가를 감소할 수 있다. 기업은 규모를 줄이고도 전과 동일한 양의 산출물을 유지하며 거래원가를 줄일 수 있었다. 대리인이론에서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다양한 이기주의적 행위자들 간의 계약의 연결관계이다.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면 대리인비용은 조직의 복잡성과 함께 늘어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대리인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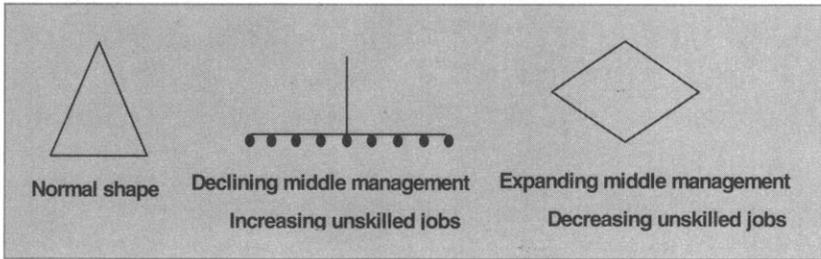
그러나 이 같은 경제학 이론은 기술이 기업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경제학이론들이 정보통신기술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도 정보통신기술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 기술의 영향에 추가하여 새로운 결과가 추가된다: 기업의 네트워크와 가상화의 비용이나 추가생산비용이 거의 제로인 점이 다르다. 전통적 기술은 특허의 형태나 기계속에 내장이 되어 판매되었을 때 거의 완벽하게 전수가 되나 정보통신기술은 판매하여도 지속적인 개선의 능력이나 학습의 능력은 거의 완전한 전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위 학습효과에 의한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물류비용과 출판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이 기술하에서는 조직인들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협동과 작업이 가능하다. 전통조직과 기술하에서 불가능하였던 소위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범위(reach)와 전달강도간의(intensity)간의 상반관계(trade-off)가 없이 양자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특성 등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전통적 기술과 차별된다.

다양한 경제이론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 특정기업의 실제적 행위를 기술하고 예측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으로 이루어지는 행동과학의 이론이 특정기업의 상황을 엄밀하게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행동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해서 조직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ICT의 전략적 가치를 간과한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지식산업에의 재빨리 변신을 하지 못한 사례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

의사결정론과 통제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기능은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조직은 의사결정을 집중화하고, 계층적으로 의사결정을 구조하에서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리스크를 감소하여 조직의 생존가능성을 높인다. 기업은 많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최고관리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수의 중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은 중간관리자와 미숙련 노동자의 수를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기업들로 하여금 네트워크화된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하여 정보의 수집과 배분에 드는 원가를 감소시키고 경직화되고 계층제적 관료체제와 중간관리자로 인한 원가를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조직의 구조는 전통적인 피라미드 형태에서 역 T자 형태로 변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Leavitt and Whisler, 1958, Drucker, 1988). 다른 연구에 의하면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그림1] 변화하고 있는 조직 형태

하위직 노동자의 수를 대폭 감소 할 수 있고 중간관리층을 증가시켜 다이아몬드형은 이론다는 주장인데(Shore, 1997) 오늘날 기업에서 지식노동자들의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점에서 이 이론의 예측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학자들은 권력, 계층의 증감, 관료적 구조, 그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운영절차의 연구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조직의 본질적 문제는 환경이 바뀌어도 조직의 관료화 현상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데에 무능하다는 점이다. 경영자는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관습과 하부단위에 위협적일 때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시간이 흐른다면 기업의 생존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조직은 시간의 흐른 뒤 실패의 길을 걷는다. 새로운 기술은 새롭게 조직화되어야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표준운영절차와 융화되어 진다. 그러나 조직들이 낡고, 관료화되고 견직성은 탈피하지 못하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 (Meyers, 1998)

조직은 마케팅, 회계, 인적자원, 생산과 같은 기능별 부서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기능별 부서들은 이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고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치이론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하부 부서간에 조직의 자원과 절차 및 정책에 걸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경쟁의 결과로도 나타난다(Laudon, ibid).

사회학자, 정치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경영학자를 포함하는 행동과학자들은 지식경제와 후기 산업사회이론에 동조하고있다. 행동과학 이론에 따르면 후기산업사회의로의 변화는 경제와 조직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권한은 점차 공식적 지위보다는 지식과 능력에 더욱 의존하게된다.

조직의 형태는 점차 수평적이 되는데 전문 직업인은 자율성과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려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조직전체에 확산된다. (Lee, Methods, 1999)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경제구조와 노동자체 그리고 소득분배의 구조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제조업과 농업부문은 성장하는 서비스분야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또 사무직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 전통적인 서비스직이 데이터노동자, 정보노동자, 지식노동자로 재분류되고 적시에 변신을 하지 못하면 제거되거나 격렬한 세계적 경쟁 하에서 소멸될 뿐이다.

미국의 경영정보시스템 분야는 점차 세계적 경쟁환경 하에서 경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과학과 정보기술간의 학제간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지식경영학의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사례로서 Laudon(1998)등은 MIS의 핵심분야가 경제학, 경영학, 행동과학 그리고 정보기술로 구성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서 잘 들어난다. 그러나 이 같은 유기체론적인 학제간 접근은 미국 밖의 구대륙에서는 전통적이 기계론적 조직형태의 장기적인 영향 때문에 잘 성공하지 못하고있다(Huh, op cit.).

경영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분야는 중역지원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지식노동시스템, 사무자동화시스템 거래처리시스템 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전통적으로 1) 판매/마케팅, 2) 제조, 3) 재무, 4) 회계 그리고 5) 인적자원의 기능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의 중대형 기업에서 중간수준의 조직정보시스템과 보다 낮은 수준의 시스템은 적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략수준과 지식수준의 시스템은 미국의 회사와 비교하여 한국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약한 경쟁의 잠재력의 원인으로 보인다.(Huh, 1998) 연구개발과 경영의 혁신은 점점 지식경영에서의 ICT의 적용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바꾸어 놓았다. 일반적으로 ICT의 사용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상위 최고경영층이 그것을 사용하여 가치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는데 시스템의 성패가 달려 있다.

직업과 노동구조에 미치는 ICT의 영향: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농업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약90%정도가 농업에 종사했고, 산업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33%가 2차산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지식정보경제에서는 대부분의 인적자원이 3차산업의 정보/지식경제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고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다. 미국연방정부 노동국(BLS)의 1985년 예측에 따르면 1,600백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1,700백만 개의 통신기술, 하이테크, 지식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 최근 미국에서의 발전은 이 같은 예측의 정확성을 말해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고 있는 미국경제의 전례 없는 호황은 BLS의 예측에 근거하여 미국학계, 정부의 정책입안자, 경영자, 노동자가 도래하는 변혁에 대비하여 준비를 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에서 분명한 것은 국민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 기업과 가계(노동자)가 신속한 변신을 빨리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Kang, 1997).

그러나 미국만이 아니라 영어사용권 나라인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에서 정부, 기업과 노동자의 상당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정치경제학자 Neef(1998)는 미국 경제활동인구의 75%를 지식노동자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Laudon et al (1998)은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미국 전체 인적자원의 약60%를 지식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 미국에서의 GNP 성장률의

80%가 지식노동자의 기여에 의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있다.

임금 격차: 서구와 일본 등과 같은 선진공업국에서 만성적이며 대규모의 실업자의 증가는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전환하는데서 파생하는 어두운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 실업의 문제는 70년대부터 구미선진공업국이 아태지역의 도전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잃어 버린데서 유래하며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은 재교육과 ICT의 신속한 활용을 통한 생산성의 급속한 향상으로 실업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세계최초의 지식기반경제를 달성하였다. 1995년 OECD 국가에서 실업은 총 3천5백만 명에 이르며 이중 1천5백만 명의 실망한 실업자로서 직업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였으며 대등한 수의 불완전 고용자의 수까지 합하면 대략 6천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불완전 고용의 비율은 1998년에 1천9백만 명의 10~12% 수준으로 개선된다. 1978년에서 1992년 사이 미국에서도 4천2백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였으나 2천6백3십만 이상이 낮은 임금으로 재 고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8백7십만 명의 실직자와 6백만 명의 불완전 고용자 그리고 거의 1백만 명의 실망한 실업자로 기록이 되고 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대부분의 미래학자는 고용문제에 대하여 낙관적이었으나 일부 학자들은 1970년부터 인간의 작업을 로보트가 대체할 것으로 보아 매우 비관적이었다(Rifkin, 1994/ 96). 미국 이외의 후기산업사회 이론가와 지식경제의 추종자는 지식노동자와 비지식노동자간의 임금격차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일부 지식노동자 지역(예를 들면 미국)과 이류(유럽) 혹은 삼류(개발도상 경제) 지식노동자 지역간의 임금격차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1995년 대통령 위원회 보고서 내용으로는 20대 80이론이 거론되고 이에 따라 OECD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최근 만성적인 실직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것으로 경고했다. Hans-Peter Martin과 Harold Schumann(1997)은 20대:80의 이론을 확대하여 자유시장에서 40억의 인구 중 단지 8억 명만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였으며 총 부(wealth)의 80%를 차지한다고 추정하였다. 이 이론을 최근에는 정보격차 ((Digital divide)이론으로 불리우고 있다.

최근 새로운 사태가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21세기 경제"에 관한 특집을 발간한 Business Week지(Aug. 24-31, 1998)의 배증판에 따르면 미국경제만이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하바드대학의 노동경제학자 골딘 (Claudia Goldin, 1998)에 의하면 기술과 교육간의 끊임없는 경주가 진행되고 있다. 때로는 교육이 앞서고 또 때로는 기술이 앞서 나간다. 미국경제의 장기적 번영의 원인으로 미국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들 수 있고 또 교육을 통하여 첨단기술을 익히고 그로 인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부를 누릴 수 있는 미국 중산층의 가치관에 따라 그들이 하이테크의 시대에 번영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97년에 고등학교 졸업생 중 49%는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1998년에는 그 비율이 67%로 증가하였다.

골딘의 교육과 기술의 경쟁이론에 의하면 미국경제는 1991년 3월 이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놀라운 3.9%의 실업률이라는 완전고용을 달성한 것이 미국의 기술 및 경영교육의 우수성에서 설명이 되고 서구국가의 높은 실업율의 감소가 안되거나 일본경제가 침체된 원인이 중산층의 가치관과 교육기관의 견직성에서 나온다고 말할수 있다. 미국의 지식경제 진입에서 선두에 있으며 세계적인 임금격차와 만성적인 실직의 문제는 정부, 기업과 가계가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변화와 유동성을 가질 때, 교육개혁을 통하여 큰 부작용이 없이 지식경제로 전환 할 수가 있다.

미국의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이 미국의 지식경제의 선두적 위치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경제적 장래를 위하여 미국 경영학 교육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경영학 교육을 개선할 당위가 발생한다. 또한 미국의 경영학 교육에서 얻을 교훈은 교육 개혁의 목표를 전통적인 서비스업 종사자와 육체노동자들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식노동자와 데이터노동자로 전환하는 일이며 이 길만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길 밖에는 국경 없는 세계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 미국경영학 교육의 하부구조로서 행동과학의 기초를 둔 미국의 사회과학의 발달, 4,000여개 대학의 물량적 토대 풍부한 연구기반과 깊은 산학협동의 문화 그리고 文語와 기억과 해설을 강조하는 동양적 교육전통에 반하여 口語와 추리력과 상상력을 강조하는 서구 교육전통의 뿌리 등을 들 수가 있다.

4. 미국 경영학 교육의 잠재력

많은 사람들은 실용주의 교육철학을 완성한 William James와 John Dewey를 미국 교육제도의 선각자라고 생각한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어떤 잣대로 재여도 미국 대학이 서구의 명문대학에 비하여 학문의 수준, 역사, 전통 그리고 학술적인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동안 미국 대학은 전 분야: 순수과학, 공학, 농학, 의학 그리고 약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그 응용분야인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의 최고 수준으로 탈바꿈하였다. 서유럽과 아시아 학계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하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 몇몇 서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이 사회심리학과 행동과학 등 고유한 미국의 창조물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미국대학 사회과학 교육의 특성 중 하나인 사회심리학과 행동과학에서 고유한 점은 무엇인가? 미국의 사회심리학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과 독일의 사회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 분야는 사회학과 심리학의 틈새 분야이다. 연관분야인 교육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은 자연과학의 방법을 급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현상철학과 실존철학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어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미국의 사회과학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인정하는데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Huh et al, 1993).

미국 사회과학의 학제적 접근 전통: 미국 사회과학의 학제적 접근방식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서 피난한 유대인 과학자들과 미국인 학자들이 인간행동의 다학문적 특성을 감안해서 시작한 것이다. 원자탄을 만들려는 자연과학과 공학계의 만하탄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오스본(Osborn)의 지휘하에 “미국 군인” 이라고 하는 방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되었다. 그 프로젝트는 부산물로 행동과학 즉 사회과학의 학제적 접근방법이 태동하였다. 그 전통은 조직이론, 마케팅, 경영관리학, 정치학, 행정학, 교육학 그리고 매스컴 이론에서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있다. 행동과학의 철학은 비

교적 단순하다. 사회과학의 많은 하위과학들의 개념은 사회적인 실체라고 하는 동일한 사회현상을 다룬다. 그러나 아직도 기초과학간에 높은 장벽이 있고, 각 분야들 간에 서로 다른 언어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인접분야는 성서의 말대로 “바벨탑”이 되어서 상호 영향을 얻을 귀중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학문간의 통일운동이 1960년대부터 시카고 대학 출판사에 의하여 발간된 통합과학의 백과사전에서 생물학과 열역학으로부터 유래된 일반 시스템이론의 전파와 더불어 함께 시작되었다(Huh, 1996). 그러나 학제적 접근의 이상론과 실제 적용간에는 언제나 문제가 뒤따른다. 각각의 특정 기초과학분야에 있어서의 성숙도가 다르며 균형을 이루지는 않는다. 한 학자가 교육을 받는다면 그는 대체로 하나의 특정한 전공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전공이 다른 2-3 명의 학자가 만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동료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각자는 자신의 전공지식의 수준을 낮추어 이야기한다. 상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전공영역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각각 분리되어있는 전통적인 기초학문 분야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인간행동의 다차원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실체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 학제적 접근의 목표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학자간의 한계가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heriff와 Sheriff(1968)는 학제적 연구에 참가하는 모든 학자는 연구자 모두가 각각 항상 두 분야 이상의 기초학문 영역에서 높은 전문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한 문제의 다면성을 다루기 위한 각 기초과학의 접근이 융합되는 해결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반·합의 새로운 지평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살라드식 또는 심포지움 접근방식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대개 학제적 접근이 실패하는 이유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기초과학의 만남이 새로운 지식과 학문적 돌파구를 이루기보다는 그 주제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와 타협에서 온다. 60년대 이후 미국의 행동과학은 서구적 현상학과 실존주의적 영향에 대한 반동으로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대폭적으로 도입하여 최소한 양적으로라도 급진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근대적 학문의 학제적 접근법의 호시는 르네상스시대의 화가이자 건축가이며 조각가 그리고 발명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의 기하학적인 지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의 회화와 인간의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영향을 받은 그의 조각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바드 대학의 사회학자 Bell(1980)에 의하면 당대의 모든 영역의 지식을 소상히 알고있고 알고 있고 동시에 그 지식의 창조적 융합의 실천인 공학적인 형태로 실체화하는 경지에 이른 다빈치가 서구의 지성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단언하고있다.

현대의 성공적인 학제적 접근의 예는 학자로서 완전한 합리주의자를 상징하는 Homo Economicus의 전통적인 경제 모델을 비판하고 새 이론을 세운 Simon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전지전능함을 가정하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의 인간모형은 실제로 경제적 행위자들이 시장에서 완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하는데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하고있다. 대신에 Simon은 시장에서 학습하고 정보를 얻는데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만족할만한 수준 혹은 제한된 수준에서 행동하는 경제적 행위자들의 한정적 합리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Simon의 의사결정이론은 1947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20여년 후인 1978년에 가서야 그의 이

론을 인정하고 경제학의 노벨상을 수여하였다. Simon은 정보이론과, 심리학의 동기이론과 학습이론을 혼합하여 경제학과 경영학의 획기적인 이론을 수립하였다.

학제적 연구의 다른 예는 Katz와 Kahn (1966, 1978)의 “조직의 사회심리학”(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1967, 1978)에서 발견된다. 이 책은 조직심리학과 산업심리학, 혹은 줄여서 조직행동론 분야에서는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물리학과 생물학으로부터 일반시스템 이론과 동시에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문화인류학과 경영학으로부터 역할이론을 통합하였다. 그 작가들은 또한 조직체의 행동과학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정신분석학, 경제학, 그리고 정치/행정학과 정치경제학으로부터 조직행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미국 경영학교육의 유연성: 미국 경영학 교육에서의 학제적 접근의 전통과 실용주의의 영향은 경영학의 사례연구법 등에서도 발견된다. 경영학 교육과 연구에서 행동과학의 전통은 인적자원 관리와 마케팅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경영학과에 조직론 관련 교수의 임명에 타전공자인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정치학 전공 교수를 임명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지만 미국대학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미국의 대학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을 소상히 알고있는 학제적 교수들이 경영정보학 강좌를 맡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 유사한 학과는 대부분 경영학과 밖에서 분리되거나 최소화 되어있다. 그리고 MIS 프로그램은 유사 전산학과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 즉 학제적 분야마저도 비학제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너무도 강하다.

최근 미국의 대부분 학부 경영학 프로그램에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에 관한 과정이 설강 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3~5개는 핵심 과정이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이다. 창업에는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 마케팅, 경영학의 지식과 이공학 또는 기술관리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은 경영학, 공학, 미술학, 과학과 법률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캠퍼스 내에 개설된 창업 인큐베이터의 경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실무경험의 투입이 요구된다. 교수들의 컨설팅 경험, 기업인의 특강과 사례의 자료제공이 경영현장에서의 입력이다. 그러한 실용주의와 학제적 접근으로 미국의 경영학교육은 유연해 졌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 노동자와 경영자는 지식경제의 시대에 있어서 높은 적응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한국의 학제적 연구: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제적 접근의 배경과 그 성과를 한국에서 행하여진 학제적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에서는 학계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성공적인 학제적 연구성과는 전무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인 필요에 따른 학제적 연구의 사례가 몇 가지 발견된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학제적 연구의 성과는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미미하다. 왜 그런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한국학계의 전통과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Huh, 1993).

한국 지성사: 한국에서 정부의 학자/관리를 임용하는 시험체제는 중국 왕실의 과거제도를 고려양조 광종때 도입된 이래 800년여간 동안 유교의 주자학파의 사상을 엄격히 적용하여 내려왔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실용적인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나 경영경제학보다 추상적인 인문학이다. 2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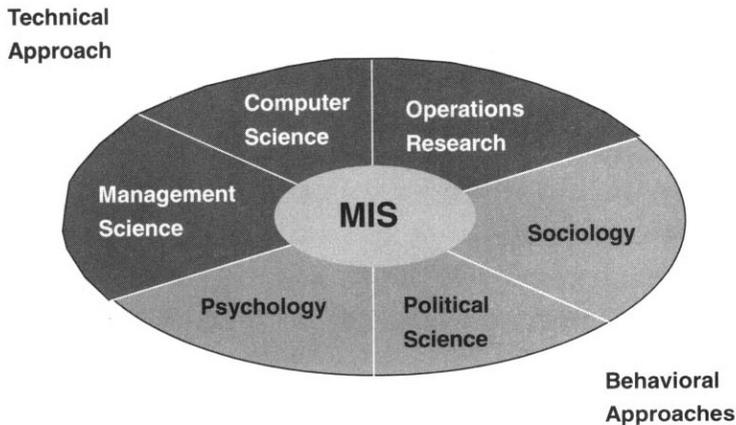
기에 접어들어 구미의 예술과 과학이 다량으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의 선발과 진급에서 법조계 시험을 보는 제도에서 전통적 유생들의 전통이 새로운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IMF의 한파를 겪기 이전까지 평균 한국인의 생각 속에 전문직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여전히 공무원 아니면 정치가이고 권력이 주어지는 대기업의 직업이다. 이것은 실리콘 벨리나 미국의 Ivy League 근처의 high tech 벤처기업과는 대조적이다. 한국 지식층의 형이상학적 전통은 학제적 연구 프로젝트의 자연적인 발전방향과도 대치된다. 물론 혹독한 외환위기와 IMF의 관리경제 체제 이후 서울의 실리콘 벨리의 폭발적 팽창 등 많은 변화 가있었지만 문화는 그리 극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다.

대부분 한국학제적 연구는 다양한 명칭하에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형과 무형의 자원을 동원하여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화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의 유치와 높은 굴뚝산업으로부터 정보기술에 대한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꾸는 연구계획을 벌렸다. 1990년 대 초 김영삼 대통령은 두 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였다. 한국에서 정치의 현대화와 한국경제의 세계화이다. 현 김대중 대통령은 “새 국가건설”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학제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각종 학제적 연구도 정부주도로 된 것이 많았고 그것 각각 많은 학문의 발전과 이론의 발전에 기념비적 흔적을 남겼으나 한국의 각종 정부주도하여 학제적 연구는 “눈먼돈 따먹기”나 더러워서 하지 않는 극단적 감정의 논리아래서 그 학문적 기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이들 한국의 학제적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념의 갈등을 앓은 채 미국 학계의 군부대의 연구에서 파생한 30 - 60년대의 소집단 연구, 직무만족도 연구, 리더십 연구, 60년대의 미국 학생운동 연구, 50 -90년대의 일본기업 연구에서처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미국의 학제적 연구의 성숙된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지나친 감정의 논리와 전문가적 소명의식이 없어서가 아닌가?

여하간 한국학계의 정부주도형 학제적 연구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비참가자의 오도된 청교도주의와, 참가자의 질적 수준에서 비학자적 자세 또는 배금주의적 자세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 한국 학자들의 하위문화는 미국의 학술적인 전통과 비교하여 볼 때 전통적으로 자신의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학문적 전망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내부지향적내지 현실 안주형 이어서 대학원에서 훈련받은 수준을 계속 확대하려는 전문가 정신이 약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은 지배적인 한국문화가 800년간 지속되어온 과거제도의 오랜 관행에서 학문탐구가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적 또는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으로 타락한데서 오고 이조말기에 실학자를 중심으로하는 산림운동과 있었지만 진리의 탐구자체를 목표로 서구의 프로테스탄트 문화의 소명의식(Calling)에서 오는 전문가 정신, 즉 종국적 가치(Terminal value)가 한국의 지성계에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은데서 오는 현상이라 보겠다. 그리고 심층에는 근본주의적이고 감정적인 흐름이 짙게 깔려 있다 (Hun and Kim, 1992, 1998).

5. 한국경영교육 혁신의 기준으로서의 미국경영자

유기체론적 지식노동자와 기계론적 지식노동자: 미국의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영과 조직 혁신의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미국기업조직은 ICT를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유기체론적이고 많은 한국적 기업조직은 그렇지 못하는 기계론적 조직생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 이 기준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산업국과 한국의 경영자를 미국경영자와 차별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고있다. 미국경영자들은 ICT의 경제적인 잠재력과 조직적인 영향을 충분히 알고 그 활용을 조직의 설계와 전략에 적극적으로 추구하였고 기타 국가의 경영자들은 이에 비하여 적어도 20-10-5년 늦게 출발하고 있다. 그 차이는 학문의 지평을 끊임없이 확대하려는 미국적



[그림2] 미국 MIS의 학제간 접근

학계의 역동이 좁은 지평에서 벌어지지 못하는 전통적 대학의 학과와 지식인 문화의 차이에서부터 벌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사회학자 피오레와 세이블은 정보화 기술의 특징은 유연 전문화의 특성을 가진다고 (Pior & Sabel, 1984) 분석한바 있거니와 이것은 21세기형 경제사회와 미국적 대학문화의 적합성을 가지게된 데서 온다고 하겠다. 이것을 부연해서 말한다면 복수전공의 연구자와 다기능적 기술인력의 끊임없는 학습과정에서 발견이된다. 왜냐하면 21세기형 지식경영의 지식이란 관련지식군 시스템의 정치경제적 역동과 또 그의 실천인 관련된 기술과 경영의 융합에 의한 신속한 행동화와 과감한 원가의 절감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지식의 역동이 경제적 가치창출을 하는 창조성이 가장 큰 동인이 되고 있다. 즉 지식노동자는 관련 지식군의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가치로 변환하는 주역이며 그 효율성은 지식군의 배경이 동등할 적에 정치경제적 행동의 성과가 문화적 간섭에 의해 내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성공한 사례가 씨티은행, CNN, 아마존, AOL, 마이크로소프트, 아메리칸 에어라인.

월마트, 카탈로그 사이트, FedEx, 리바이스, Baxter, 시스코, IBM, 스피버그 Inc, 그리고 디즈니월드가 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기업의 미국 지식노동자들과 지식관리자들은 21세기에 적합한 유기적인 조직을 꾸준히 개발하여 학제적 접근에 탄력적인 문화적 행동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영자를 포함하는 아시아와 서구의 경영자는 비학제적이고 유연성이 적은 단일 전공의 기계론적 전문가들간의 역동이 적은 경우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에 많이 요구되는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지식노동자들이 왜 미국에서만 대규모적으로 배출되었다면 그 해답은 미국 대학의 대학원 전통에서 발견된다. Laudon (1998)등에 의하면 MIS 전문가들은 ICT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식군으로 개량적분야인 경영과학, 컴퓨터과학과 OR 외에도 여러 행동과학의 기초학문으로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을 포함하는 지식의 영역을 보다 넓게 가져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혁신을 후에 모방을 한다면 생존하기 힘든 것은 세계화와 세계적 규모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21세기형 지식/정보경제 환경은 첫 진입자만이 이윤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소위 "winner takes all." 나 "제 2인자는 설자리가 없다"라는 구호가 잘 말해주기 때문이다. 유연한 전공으로서의 MIS의 접근모형이 아래그림에 나타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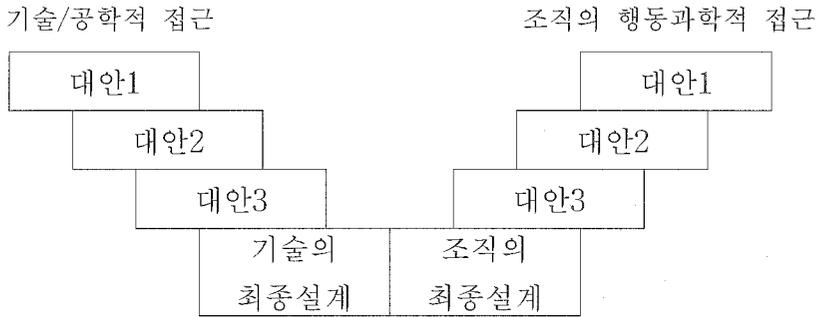
이 접근은 불가피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 기술적이고 수량적인 분야에서는 비교적 명쾌한 결론을 비교적 빨리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과학의 모호한 분야에서는 손쉬운 해답을 빨리 얻을 수 없고 또한 언더라도, 그것은 잠정적이며 결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정반대 되는 특성을 가지는 지식분야가 잘 융합되어, 공학적인 지식과 행동과학적인 지식 모두가 고도의 수준에 이르고도 최적의 융화를 이루고, 또 끊임없는 개선을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화권만이 유기적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나 한국학계는 아직도 한국의 조직에 대한 행동과학의 지식에 대한 연구성과를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행동과학과 경영/관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한국의 MIS 전문가들이 융통성 없고 좁은 전공만을 알고있는 전문가의 손에 기업의 MIS가 매겨진다면 그 결과는 높은 원가만 들고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국대학 교육개혁의 사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대학 교육개혁 프로그램은 각종고시와 고소득 직업에 연관된 권력과 부의 잠재적 관점에서 전공분야를 선호하고 학생이 과집중학과 학문들이 계급화되는 폐단을 감소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그 내용은 학제간 교육 프로그램의 증가로서 세분화된 많은 학문분야가 소수의 큰 분야로 합병되는 것이며 학생들이 전공과목간의 이동을 쉽게 한 것 이었다. 즉 학생들은 그들의 대학교육을 2년 이수한 후에 전공분야를 바꿀 수 있다. 이제 전공필수과목은 없어지고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이 됨으로써 학생들이 성적을 얻기 쉬운 과목을 편애하는 결과를 보였다.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 분야간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잃어버렸고 둘 다 불만을 갖게 되었다. 대학의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현재 많은 대학들은 다시 옛 체제로 돌아가려 하고있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에서는 미국 대학이 제공하는 인공위성을 통한 채택교육 MBA 과정에 자체 경영자들은 보내고 있다. 삼성전자 등 많은 회사들은 한국 과학원 경영공학대학원의

MBA-MS-MIS 공통전공과정에 참여한다. 일부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의 학제간 특성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과 같은 비공식적 소식을 듣게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많은 통계학 과정을 수강했는데도 실제 연구상황에서 통계적 방법을 잘 쓰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동대학원 교수와의 대답).

교육부에서는 대학교수의 연구업적평가제도를 통해서 영미 식의 경쟁제도를 도입하려하나 강력한 평등주의 문화로 인한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는 것 같다. 대학의 전통적 조직문화의 작용으로 점진적 합리주의제도는 포항공대와 한국 과학원 경영공학대학원 같이 미국의대학문화를 직수입한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정부의 BK21(21세기 두뇌한국)의 사례는 그 계획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심사기준을 대폭 하향 수정을 가한 한 후에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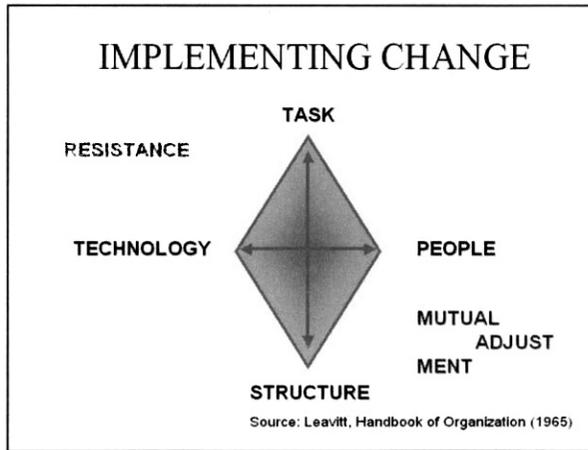


[그림3] 조직설계의 학제적 접근에 관한 단계적 상호 학습과정

지식경제와 경영은 경영학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학제간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체제, 역사, 문화, 전통과 자원부족에 오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교육을 잘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공학 분야를 선택한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교육을 적절히 받지 못하여서 후에 학제적 접근에 큰 지장을 입게 된다. 한국의 교육체제는 유럽/일본의 교육체제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받아왔다. 유럽과 일본의 체제는 기계론적 산업경제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한국식 교육제도는 극히 보수적이어서 자율적인 혁신을 빨리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산업사회에서는 사회적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지식경제사회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한 발빠른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과서를 다시 쓰고, 유능한 교수진을 대규모로 재배치하여야 한다. 한국대학은 연구의 질과 양의 향상을 위하여 교수간의 경쟁체제를 이루기 위한 업적평가제도를 프로그램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 형식적이다. 이와 같은 대학문화의 개선을 위한 진지한 연구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한국 경영 교육 개혁에 대한 제안

경영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교육의 개혁은 한국경제의 지식경제화를 준비를 하기 위한 교육의 명백한 목표를 설정해야만 한다. 지식기반경제는 정부, 대학, 기업, 그리고 가계/노동자들의 유연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교수를 학제적이고 융통성 있는 전문가와 지식노동자로 바꾸려는 목표를 가진 대학교육개혁에 의해 확산되어야 한다. 발견적인 모델의 학제적 접근법을 위에 제시 한다. 행동과학과 정보기술의 최적의 융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의 해법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단순히 나오겠으나 행동과학적 변인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잠정적 시안을 여러 단계 겪어서 질충과 검토를 겪은 후에 최적의 해법이 나올 것이 상되고 이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림3]



[그림4] 성공적 체제통합에 있어서 네 가지 주요 영역의 어려운 적응
Laudon et al, 1998, p.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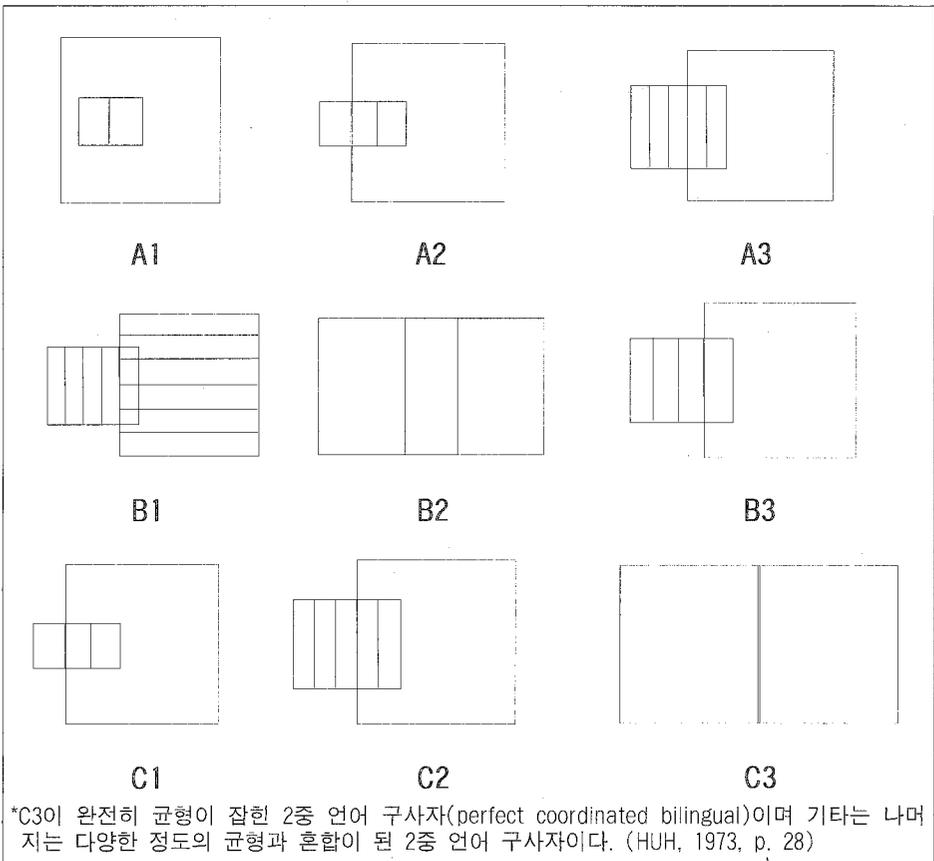
후기산업주의자와 지식경제의 주창자들 가운데 문화인류학자들은 ICT가 그 조직의 문화와 융화가 잘 되어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산업사회의 경제에서 지식경제로의 유연한 변화를 위해 일치하는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론은 한국의 최근 경제적 위기에 대한 좋은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기업에서 낮은 층의 관리자와 중간층의 관리자에서 정보시스템을 잘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기업에서 상위 층의 경영자들은 ICT를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즈 알렌과 해밀턴 보고서는 한국기업은 관리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하다고 처방했다(매경-부즈 알렌 보고서, 1997).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ICT는 차선의 최적화를 가져오지만 전체조직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자동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은 정보체계가 사람, 구조, 업무와 기술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성

공적 정보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되었을 때,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조직원가의 단순한 급등이라는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잠재적 저항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치밀한 저항의 극복을 위한 계획과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자산으로서 영어: 지식경제시대에 한국이 생존하기 위하여 대학의 경영/경제와 과학/엔지니어 교육의 약 50%를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어는 세계 무역과 세계화의 언어이며 정보통신기술의 언어이고 지식기반경제의 하부구조이다. (Huh, 1999). 경제학자 크르구만이 영어사용 문화와 국가경쟁력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Krugman, 1999) ICT가 영어사용권에서 처음 개발되고, 지속적인 개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있는 바 이의 신속한 학습과 충분한 사용이 영어사용문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 과학기술서적과 논문을 포함하는 지식과 정보의 8-90% 이상이 영어사용권에 귀속이 되어 있고 또 신속히 발전되고 상호작용이 되며 그 중요한 채널이 각종 학술회의이기 때문이다. 노나카 교수의 21세기 경영학인 지식경영은 암묵지의 형식치로의 변환이다. 그런데 이 암묵지의

2중 언어 구사자의 4차원 모형



대중은 文語가 아닌 口語에 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지도 일본이 영어사용국인 동남아에 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大前, 1995). 학생들을 한국어와 영어의 2중 언어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훈련을 하면, 학생들은 넓어진 지식과 정보의 접근과 인지과정의 확대로 보다 창조적이고 상상력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식노동자의 필수조건인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흡수와 평생학습의 능력과 창의력을 갖추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부 미국 사회과학자들은 한국학생이 이론에 약하지만 계량과 공학에 강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미국 학계에서 이론에 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오해는 많은 한국학생들이 영어가 약해 이론적 분야보다는 계량적 분야만을 선택하는 데서도 온다. 또한 영어에 강한 한국학생은 앞에서 언급한 한국고등교육의 문제점으로 계량적 분야가 약하여 그와 같은 과목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학생의 극소수만이 미국 학문의 이론적 철학적 측면과 계량적 측면을 고루 배우고 돌아온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영어 사용권인 싱가포르나 홍콩에는 없으며 영어로 사고를 하면서 모국어로도 생각 할 수가 있다면 두 언어의 다른 발상법과 문화감정의 세심한 차이를 지각 할 수가 있어 창의력이 증가될 것이 기대된다. 이중언어 사용자의 두언어 체계간의 간섭정도를 나타내는 언어심리학적 모형이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5] 참조.

2백여년간 산업사회의 문명 속에서 사용되어진 영어 속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의 문화가 내포되어 있다. 그 예시는 영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중국인들은 우리와 대동소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도 서구와 똑같은 합리성과 투명성을 사회시스템에서 나타내고 고도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어는 이성의 시대,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노출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한국어는 9백년이 넘는 한국유교주의 문화와 제도하에서 절대왕권의 문관의 시험제도와 전통에 길들여져서 시어, 문학적 언어 등 감성의 사고와 윤리적 판단의 사고로 한정하여 합리성을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한국인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대부분 실패하였으나 동남아 중국교과 일본인들은 중국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사실을 나타낸다고 보아지겠다(Shiotusugu and Ha, 1997). 신동엽교수가 조사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는 비미국형 유럽의 3대 경영대학인 영국의 LONDON Business School 은 말 할 것도 없고 프랑스의 INSEAD,와 스위스의 IMD 마저도 영어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신동엽, 2000).

1998년 8월 비즈니스 위크지는 "21세기 경제"의 특집에 미국과 몇몇 영어권국가만이 21세기에 번창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예측을 하였다. 뉴스위크지 일본어판은 21세기에 번영할 10개 하이테크 리더 도시에 Cambridge, Tel Aviv, Seattle, Singapore, Boston 그리고 Bangalore 등을 선정하였다. 세계적 기술 리더의 도시는 거의 모두가 영어를 사용하는 도시이다. 이미 일본과 한국에서는 영어를 공식언어로 하자는 공론이 나오고 있다.

7. 결론과 요약

후기산업사회 혹은 정보사회의 시작은 에니악 컴퓨터가 처음 등장하였던 1946년부터이다. 후

기산업사회는 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산물이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에서 주요 경제적 행위자들은 대학원과정과 대학원 과정 이후의 과정을 이수 받은 지식노동자들이다. 반대로 산업사회에서 주요 행위자들은 육체노동자로서 그들은 중등교육과 기술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식노동자들의 양과 질은 국경 없는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달성하는 원천이 된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산업사회의 경쟁력은 육체노동자를 배출하는 기술교육과 고등학교교육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간단한 사실은 일본의 산업경제와 1960년에서 80년에 걸친 아태 NICs 국가 경제의 급성장으로 충분히 예시되었다.

이제 일본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환태평양의 변형은 극적으로 역전되어 7-80년대에서 90년대 전반기까지의 패배였던 미국이 새로운 변형의 기수가 되어 버렸다. 그 결과가 일본의 10년간의 불황이고 1997년 7월초이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휩쓸어버린 경제적 위기이고 그 영향은 신속히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까지 미쳤다.

1991년 3월 이래로 10년간의 지속적인 변형과 완전고용, 낮은 인플레이션 하에 미국은 산업경제로부터 ICT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경제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한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와 통신기술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 기술은 공동으로 개발되었고 한국 같은 중간기술국을 포함한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선진산업국가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은 여전히 산업경제의 세계 최강대국으로 남아 있다.

한국기업을 지식기반경제에 걸맞게 빠른 변화를 가져다 줄 성공적인 전략은 지식경제의 최우수 기업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다. 그 전략 중에는 한국의 경영자들을 새로운 목표에 따라 훈련하고 재교육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한국의 경영교육 과정과 시스템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다음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식경제의 핵심은 ICT와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행동과학과 경영/경제, 법과 영어의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과목을 독립된 교과과정이 아니라 학제적 프로그램으로 행하여 져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과 학습조직은 지식경제의 핵심주제이다. 교육의 증점은 지식노동자들이 활발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로 Chris Argyrus와 Shon(1997)의 조직학습은 2중 고리이론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식경영의 전자지원체계, 전문학술지, 전문 국제학술회의로 구성이 되고 있다. 평생교육과 조직학습은 지식노동자의 지속적인 지식의 혁신을 통한 가치의 창조 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고있다. 지식노동자의 평생교육을 위한 새로운 경로가 집중하는 국제회의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국의 각 경영대학은 학생들의 장래 직업적 준비를 위해 영어로 토론하는 클럽을 장려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의 잘 조정된 (영어를 포함하는) 2중 언어 구사능력은 전략적 자산으로서 다뤄져야 한다.

다른 접근방법은 한국의 경영학 교육의 절반정도를 영어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1/3 정도의 강의를 선진국 영어권의 초빙교수로 영어로 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동일한 수의 한국인 교수가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에 가서 공동연구나 강의를 하는 방안이 적극적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점차 e-education의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한국대학이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내에서 미국 대

학과 경쟁을 하는 현상이 심해 질때를 대비하여 다양한 e-education의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의력 교육에서 한국대학이 서구 교육 전통과 다른 전통을 가지고 그 영향을 아직도 입고있거니와 기본적으로 서구 교육의 전통은 드러커가 고찰한대로 신동엽교수가 조사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는 비미국형 유럽의 3대 경영대학인 영국의 LONDON Business School 은 말 할 것도 없고 프랑스의 INSEAD,와 스위스의 IMD마저도 영어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적 지식경제의 진화는 연구와 개발, 조직혁신, 경영/경제학의 선진화 그리고 정부와 정치적 개혁의 배경에 병행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창조력에 기초한 역동에 달려 있다. 교육과 연구의 학제적 접근은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전하는 중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미국 교육체계의 특성은 학제성과 창조적 실용주의에 있다고 보아지겠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적인 벤처마킹의 대상이 되고있다. 한국의 조직과학자들의 ICT 전문가와 최고경영자와의 학제적 연구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주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 영어 교육자, 기초과학자 및 엔지니어링의 과학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미래지향적 지식노동자의 배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영학 교육에 문화관광의 경영, 패션, 중소기업론과 벤처기업론의 과목을 첨가해야 할 것이다.

실리콘 벨리의 성공 기업에 에 대한 분석은 그것이 단지 물리적 하부구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곳은 자유분방하고 모험심이 가득한 벤처리스트의 도전정신이 있다. 최근 서울 벨리의 새로운 기상이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0년간에 한국 캠퍼스에 가득 찼던 반체제 정신이 새로운 21세기형 경영자의 도전정신으로 변환된다면 21세기형 지식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서 지식경제의 한국의 미래에 큰 기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Books

- Max Weber, *Protestantism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Korean version, Iljoo, 1974.
- Max Weber, *The Religion of China* English Version, Free Press, 1951.
- SONG Jaeyoon, *Study on Yangming Philosophy*, Sasaun, 1991.
- Shimada Kenji, *Chutze and Yangming*, Korean translation by Kkachii, 1977.
- Budgelman, Robert A, et al,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2nd ed., Irwin, 1996.
- Business Week, *Special Double Issue on the 21st Century Economy*, August 24-31, 1998, McGrew-Hill Cortada, James, Rise of the Knowledge Worker, Butterworth- Heimemann, 1998.
-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Basic Books, 1973, 1976.
- Daniel Bell, *The Winding Passage*, Basic Books, 1980.
- Daniel Bell,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Basic Books, 1976, 1978.
- Henderson, Gregory,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Hof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Sage Publication, 1980.
- Hofstede, G., *Motiva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 Evanston, IL, 1980.
- KIMURA Tranl., Edward A. Feigenbaum & Pamela McCoduck, *The Fifth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apan's Computer Challenge to the World*, TBS Britannica, Tokyo, 1983.
- Klein, David A., *Strategic Management of Intellectual Capital*, Butterworth- Heimemann, 1998.
- Kluckhohn, R. R. & Stroetbeck, F.L.,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 Kent Pub, 1961.
- Laudon K. & Laudon J.,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Organization and Technology*, Macmillan, 1994, 1996, 1998.
- Hhh, Chulwoo, *Shaping Future Intellectuals of Korea*, Oksukak, 1974.
- Meyers, Paul S., *Knowledg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Design*, Butterworth- Heimemann, 1998.
- Nakane, C. *Japanese Socie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1970.
- Neef, Dale, *The Knowledge Economy*, Butterworth- Heimemann, 1998.
- Neef, Dale et al. *The Economic Impact of Knowledge*, Butterworth- Heimemann, 1998.
- K. T. Quint, ed., *Advances in Office Automation* Volume 1, John Wiley & Sons, N. Y., 1985.
- H. Otway & M. Peltu ed., *New Office Technology: Human and Organizational Aspects*, Frances Printer, London, 1983.
- Panko R. R. , *End User Computing: Management, Applications and Technology*, John Wiley & Sons, N. Y., 1988.
- Pava, C., *Managing New Office Technology, An Organizational Strategy*, Harvard Business School, Boston, 1983.
- Ruggles, Rudy L. III, *Knowledge management Tools*, Butterworth- Heimemann, 1998.
- H. Sriith, W. Baker, M. Summer and A. Bate, *Automated Office Systems Management*, John Wiley & Sons, N. Y., 1985.

- Marc S Garstein, *The Technology Connection. Strategy and Change in the Information Age*, Addison Wesley OD Series, Reading, Mass., 1987.
- Shoshana Zuboff, *In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The Future of Work and Power*, Basic Books, AY., 1992.
- Jerome S. Bernstein, *Computers and Information Systems*, Holt, Reinhard & Winston, NY., 1990.
- Carroll W. Frenzel, *Manag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oyd & Frazer Pub., Boston, Mass., 1992.
- Raymond McLeod J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acmillan Pub. Co., NY., 1993.
- Honigsmann, J. J.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54.
- Havilland W. *Anthropology*, New York, Holt, Reinhardt and Winston, 1974.
- Larry E. Greiner and Virginia E. Schein, *Power and Organization Development*, Addison Wesley OD Series, 1989.
- David G. Winter, *The Power Motive*,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 Osborn, R. N. Hunt J. G. & Jauch, L. *Organization Theory*, John Wiley & Sons, New York, 1990.
- Weber, M. *The Religion of China*, Free Press Paperback, 1958.
- Weber, M. *The Sociology of Religion*, Beacon Press, 1956.

Articles

- KANG Soodul, "Struct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Labor Union", Proceeding,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1997.
- KIM Wonki,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Proceeding, *Korean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1998.
- Evans, Philip B. et al. "Strategy and the New Economics of Inform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1997.
- George Gilder, "Creating Jobs, The Entrepreneur's Role", *Economic Impact 2* USIA, Washington, DC, 1985, PP. 18-26.
- Terence R. Lautenbach, "MIS at IBM: Improving the Business Through Better Communication," in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III No.1, 1989.
- Kiyoshi Shiotsugu & Jong-wook Ha, "Strategic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izatio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Pusan and Northern Kyushi" *Second Japan-Korea Symposium on Organizational Studies*, KAM 1997.
- Huh, Chulboo, "Psychology of Reconstr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 Lesson from the Korean Experience-An Organizational Behavior Perspective," *Proceeding, The First Post War Reconstruction Conference*, Iraqi Government, 1989, Myong Ji Economic Review vol. 1990.
- Huh, Chulboo, "The Korean Business Educators' Responses on OA Education in the University with Emphasis on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Pan Pacific Conference IV*, Taipei, ROC/1987.
- Huh, Chulboo, YOQ, Byung-jin, Isao Akaoka, "The Receptiv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Japanese Management Education," *Pan-Pacific Conference X*, Beijing, 1993, pp. 680-683.
- Huh, Chulboo, Chong W. Kim, Chi-Duk Har, Chan-Yong Jin, "The Receptiv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American Management Education," *Pan-Pacific Conference X*, Beijing, 1993, pp. 684-687.
- Huh, Chulboo, "A Comparative Analysis of Impact of Microcomputer Applications/Information Technology on Business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Four Nations," *DSI National Convention*, Washington D. C., 1993.
- Huh, Chulboo, "A Multidimensional Research on the Impact of Culture on the Information Society in Korea," 1987-1990, *Report to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1994.

- Huh, Chulboo,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Korea History, Status and Prospect,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Multidisciplinary Research Council of Japan*, Vol. 33, 1996, pp. 574 - 580.
- Huh, Chulboo and KIM, Shikhyun,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ulture in the Process of Promoting Information Society and Competitive Edge," *Sungkok Journal*, Vol. 29 No. 2, 1998, pp. 293-350.
- Soonchul Lee and David C. Robertson,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Group Structuring," *Working Paper: Sloan School of Management*, Center fo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88, pp. 1-22.
- Dan R. Dalton, Williams D. Todor and Michael J. Spendolini, Gordon J. Fielding and Lyman W. Porter, "Organization Structure and performance: A Critical Review,"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80 pp. 49-64.
- Miles, R. E. Show, C. C. Mathews, J. A. Miles G. & Coleman, H. J. Jr: "Organizing in the Knowledge Age: Anticipating the Cellular Form" *Executive*, Vol. XI, No. 4, The Academy of Management, 1997.
- Stouffer, Samuel A. et al,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in World WarII" Vol I, II, III, IV, Colonial Press Inc., Clinton, Mass., 1949.
- Varian, Hal R., "Buying, Sharing and Renting Information Goods," *Korea University Keunho Friday Distinguished Scholar Forum* 1998. 6.
- Varian, Hal R., "Differences of Opinion in Financial Markets," *Korea University Keunho Friday Distinguished Scholar Forum* 1998. 6.
- Varian, Hal R., "Markets for Information Goods," *Korea University Keunho Friday Distinguished Scholar Forum* 1998. 6.